

# 식물성 박류 시세급등 기타곡물은 약보합세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 ■ 옥수수 식부면적 감소예상

원유가격의 하락과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치닫던 미산 옥수수시세가 3월중순으로 들어서면서 다소 반등현상을 보여오고 있다. C&F 가격으로 톤당 112불대까지 떨어졌던 미산 옥수수시세가 3월말 현재 114~115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산 옥수수시세의 반등현상은 최근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가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입수요는 크게 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즉 지난 몇주동안 대만, 한국, 멕시코 등의 구매입찰(open tender)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던 Gulf Basis 또한 24센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0센트까지 올라갔고, 3월18일의 식부예상발표를 앞두고 포지션조정 등으로 인해 강세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3월 18일 발표된 미농무성의 식부예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하락이 심했던 옥수수와 수수 등의 식부면적은 감소될 전망이다. 옥수수의 경우 금년도 예상면적은 7천8백6만6천 에이커로 지난해의 8천3백3십4만8천 에이커에 비해 6.3% 가량 감소될 전망이며, 수수는 금년도 예상면적이 1천5백8십5만3천 에이커로 지난해의 1천8백2십8만5천 에이커에 비해 13.3% 감소할 전망이다. 그밖에 대두는 6천2백4만5천에이커로 1.7%, 소맥은 7천1백1십만1천 에이커로 5.9%, 보리는 1천2백8십5만9천 에이커로 1.9% 씩 각각 감소

할 전망이다. 귀리는 1천4백4십3만5천에이커로 지난해의 1천3백2십7만 에이커보다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3월18일 식부예상발표이후 미산옥수수시세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옥수수 식부예상면적이 시가고 곡물시장주변의 Export trader 들의 기대치(7천 5백만 에이커내외)를 약간 상회한데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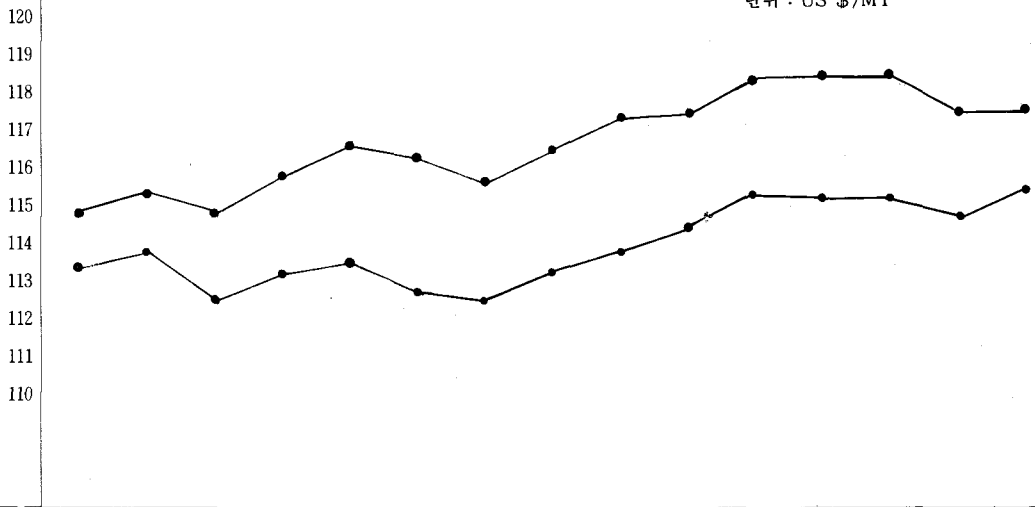
## ■ 아르헨티나산 옥수수 부상

태국산 옥수수와 중공산 옥수수가 강세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아르헨티나산 옥수수가 낮은 가격으로 한국시장에서 부상되고 있다.

현재 태국산 옥수수는 재고물량의 감소등으로 수출여력이 30~50만톤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계절적으로도 3월이후 7월까지의 상송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경쟁력을 회복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중공산 옥수수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C&F 108불선까지 크게 떨어졌으나 이는 미국의 유수 곡물메이커들이 거의 확보하고있던 PRC 옥수수처분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이제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옥수수시세는 미산옥수수와 태국산 및 중공산의 가격갭이 점차 좁혀질 전망이며, 특히 아르헨티나산 옥수수의 가격 추세가 주목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금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1천2백5십만톤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할 전망이며, 금년도 수출가능물량은 890만톤으로 전년 대비 약25.4%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가격수준은

# 1. 옥수수 시세동향

단위 : US \$/MT



월일	3. 4	3. 5	3. 6	3. 7	3. 10	3. 11	3. 12	3. 13	3. 14	3. 17	3. 18	3. 19	3. 20	3. 21	3. 24
PNW	114.92	115.21	114.91	115.70	116.69	116.10	115.70	116.49	117.47	117.57	118.37	118.56	118.27	117.68	117.78
Gulf	113.22	113.91	112.69	113.08	113.57	112.98	112.58	113.37	113.96	114.45	115.25	115.05	115.15	114.95	115.45

C&F 가격수준 톤당 109불대로, 품질면에서도 수분함량이 적고, 질은 황색을 띠고 있기때문에 일본에서는 양계용으로 크게 선호되고 있는편이다.

한편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남아공산옥수수는 대략 이번 시즌에 8 백만톤가량 수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번 남아공화국의 NAMPO (National Maize producers Organization) 에서 추정했던 1 천만톤 생산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인데 이는 한발로 인한 피해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아공화국의 한해 국내소비물량은 약 600만톤으로 지난해의 기말재고150만톤의 감안하면 약 300만톤의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 ■ 식물성 박류 시세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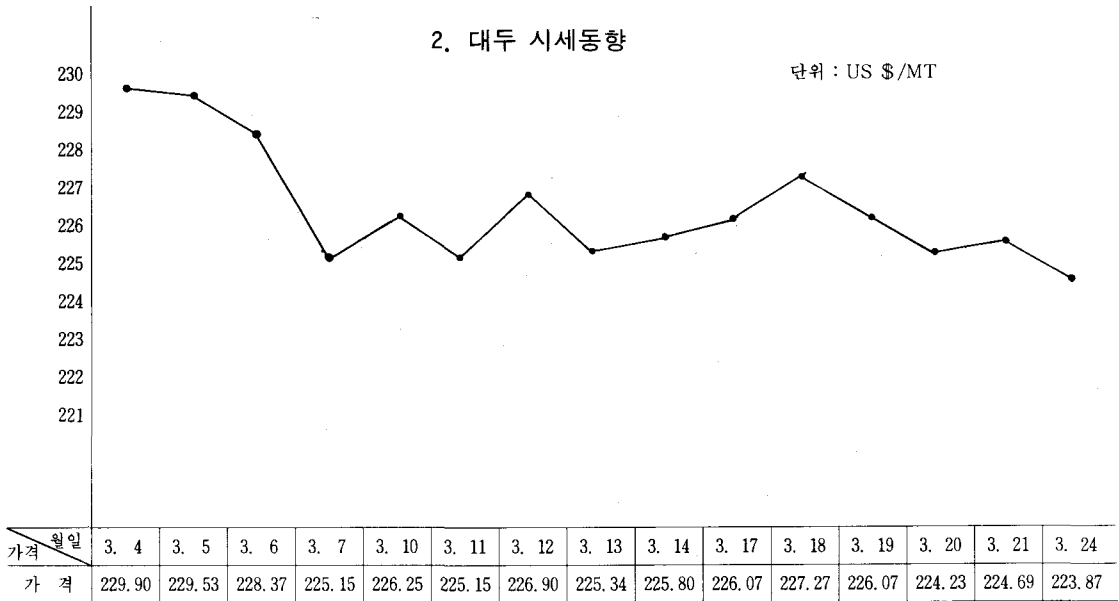
지난해 중순부터 강세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던 대두박시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최근에는 C&F 가격으로 톤당 225불대까지 치솟아대두박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대두박시세의 급등은 세계적으로 기름수요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식물성 박류 수요는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서독의 농업전문지 Oil World 지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도 대두박수요는 6천2백3십7만톤수준으로 지난해의 5천9백6십4만톤에 비해 4.6% 증가하였으며, 특히 소련과 브라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련의 대두박수요는 221만톤으로 지난해의 126만톤에 비해 75% 증가하였고, 브라질도 200만톤으로 지난해의 189만톤에 비해 5.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금년 1월1일 현재 미국의 대두유 재고량은 11억3천2백만 파운드르로 지난해의 8억8천4백만파운드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기름수요감소와 식물성기름 및 팜유, 코코넛오일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팜오일은 파운드당 12~13센트 수준으로 미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16~

## 2. 대두 시세동향

단위 : US \$ /MT



17센트의 대두유시장을 크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어 팜오일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같은 대두유와 대두박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대두유의 재고가 누중되고 있는데 반해 대두박은 공급부족현상을 보여 기타 식물성박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졌으며, 가격 또한 강세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지난해 110~130불선에서 시세가 형성되면 캐나다산 채종박(Canola)시세 역시 최근 크게 급등하여 C&F가격으로 톤당 170불선에서 시쇄가 이루어지드 있다.

한편 식부지연으로 감산이 우려되고 있는 브라질의 대두식부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나 생산량은 평년수준에 비해 20~2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래 지금시점에서 브라질의 중앙지역 및 북부지역에선 성숙이 종료되고 하락이 이루어질 시점이나 지난번의 식부작업지연등으로인해 현재 개화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금후 브라질의 대두 사정은 특별한 호전이 없는한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감소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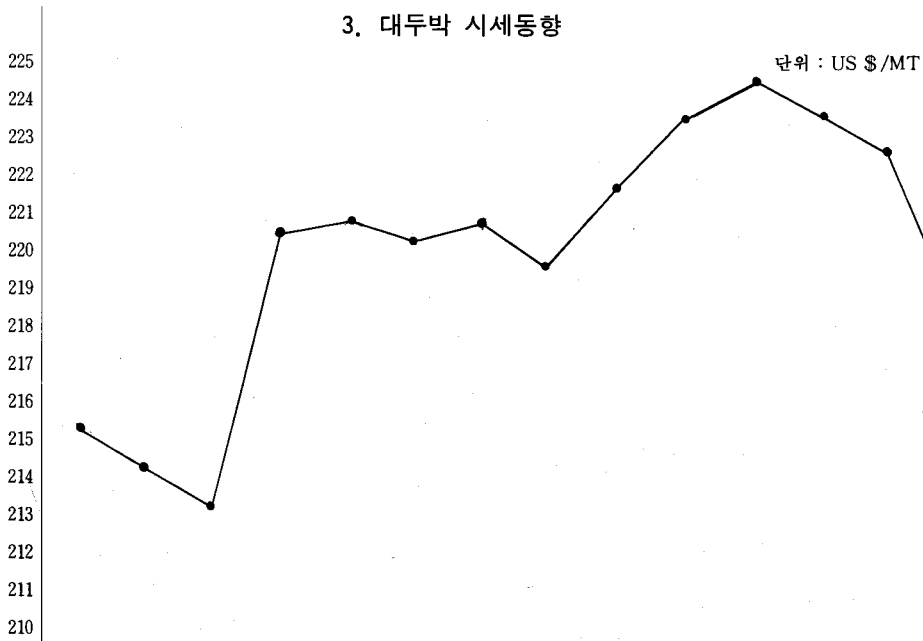
## ■ 기타곡물시세 약보합세

점차 강세현상을 보여오던 기타곡물시세도 옥수수시세의 하락세에 힘입어 3월말 현재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물량부족현상으로인해 강세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수수시세는 미산의 경우 근월도 재고 물량은 완전 소진되어 7월이후에서만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중공산은 104~106불선까지 올랐다가 최근 소맥시세의 급락에 힘입어 101불대로 다시 떨어졌다.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산 수수 역시 크게 부상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은 C&F 톤당 101불대로 중공산과 경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수수가격은 큰폭의 가격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장 큰 가격하락을 보이고 있는 사료용 소맥은 한때 110~120불대까지 올랐으나, 최근 거듭된 가격하락으로 인해 103~105불선에서 시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와같은 가격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EC 산소맥가격으로 호

### 3. 대두박 시세동향



월 일	3. 4	3. 5	3. 6	3. 7	3. 10	3. 11	3. 12	3. 13	3. 14	3. 17	3. 18	3. 19	3. 20	3. 21	3. 24
C&F 가격	225.21	224.10	223.09	220.55	220.99	220.33	220.99	219.78	221.98	223.64	224.08	223.75	222.76	218.02	214.49

주, 캐나다와 함께 삼파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호주, EC, 캐나다의 소맥재고는 불투명한 상태로 정확히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기타곡물 중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곡물중 호밀은 EEC산, 캐나다산의 경우 C&F 톤당 95불선을 보여주고 있고, 채종 박은 인도산 125불, 중공 110불, 칠레 135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도 아르헨티나, 중공산 해바라기박이

C&F 소맥피는 톤당 103불, 인도네시아, 쓰리랑카 산이 95불, 아르헨티나, 칠레산이 93불로 다소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캐나다산 G.S.P는 82불로 다소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태국산 타피오카시세 역시 C&F 톤당 82불로 다소 강세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대로 태국산 타피오카의 재고수준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Non-EEC 지역에 대한 관심부족등으로 인해 강세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양계인은  
소비촉진 홍보사업에 적극 참여합시다